

탄소소재 응용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기술교류 나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서 ‘2025년 한국 탄소학회 춘계 학술대회’ 열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서에서 2025년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2025년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중국 칭화대 페이위 강 교수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탄소복합재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그래핀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의 초청강연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탄소소재 응용기술 연구개발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페이위 강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풍력블레이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저장 기술에서 탄소복합재는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탄소소재가 가진 미세구조의 다양성, 뛰어난 전기적·열적 전도성과 같은 특성을 적극 활용한 기술개발로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등 다양한 수요산업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진행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개발 사례 발표에서 황재훈 선임연구원이 ‘나노탄소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리튬 배터리 응용 연구’를 민경재 책임연구원이 ‘JEC World를 통해 본 복합재 개발 최신 트렌드 및 공정 이슈’에 대해 발표했으며, 강창수 수석연구원이 ‘차세대 열가소성 탄소복합재 기술 동향 및 현황’을, 이혜민 책임연구원이 ‘국내 자원을 활용한 활

성탄소 자립화 개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발전을 목표로 탄소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응용 기술·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매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교류 및 탄소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올해는 탄소소재 관련 주요 학

술단체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한국복합재료학회, 한국탄소학회 등과 협력하여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특별 세션 진행 등을 추진했다. 또 이번 2025년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는 학계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실용화 및 신뢰성 분석·평가 장비 홍보와 함께 수소저장용기, 개인용 비행체(UAM), 연료전지, 풍력블레이드 등 핵심 수요산업 대상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테스트베드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400여종의 탄소소재 관련 장비를 구축·운영 중이며, 관련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 보유 장비 활용을 희망할 경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누리집(www.kcarbon.or.kr) 내 ‘장비지원’ 또는 카본넷(www.carbonet.or.kr)을 통해 사용 가능 장비 목록 확인 및 사용신청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5IVE UP 특판 예금’ 출시

전북은행, 총 한도 2000억 · 최대 연 2.75% 금리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6일부터 정기예금 ‘파워업 업(5IVE UP)’ 특판 예금을 출시한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 특판 예금은 계약기간 5개월로 계약당 1백만원, 최고 20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75%(기본금리 연 2.40%)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가입일 익월부터 3개월간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의 평균잔액 1백만원 이상 0.25%, 마케팅 등의 시 0.10% 등 최고 0.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총 한도는 2000억원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정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판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비교적 단순한 우대 조건으로 금리혜택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판 및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호우·기상이변 대비 취약시설 현장점검 실시

전북농협은 지난 22일 북익산농협(조합장 김득주)과 함께 이른 장마철에 대비한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시간 내 많은 비가 쏟아지는 돌발성 강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북농협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배수로, 농로, 저지대 농경지 등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북농협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후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대응 요령 안내도 병행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농업인을 지키는 일은 농업의 책무”라며, “민심착한 동반자 전북농협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국가 경제발전 이바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36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총 92점

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이상춘 (주)에스씨엘 대표이사 △서호권 (주)신도 대표이사 수상했다. 이상춘 (주)에스씨엘 대표이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들을 국산화에 성공·양산해 수입대체에 기여, 해외시장 개척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및 사단법인을 설립해 장학금과 의료비를 지원받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호권 (주)신도 대표이사는 ‘냉간단조 공법’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 집중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특허 11건을 취득하며 관련 부품을 국산화했다. 또한, 상시 대응 가능한 메타버스 전시관 운영 및 탄소배출 저감공법 활용 등 세계시장 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며, 한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감했던 매출액과 수출액을 고속으로 회복(‘20년 대비 매출액 77%, 수출액 114% 성장)하는 등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기업계 지원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대표이사 김병수)를 찾아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식 및 나눔 행사를 가졌다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식

농협은행 전북본부,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와 기념행사 가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진안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대표이사 김병수)를 찾아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식 및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영배 부귀농협 조합장, 변성섭 농협 진안군지부장, 김병수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은 NH농협은행이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매년 10곳의 농식품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전북기업으로는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가 유일하다. /오상근 기자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는 버섯피클 등 청정 진안고원에서 재배한 버섯으로 만든 식품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으로, 꾸준한 상품연구를 통해 최근 ‘버섯 즉석밥’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진안군내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농협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확대 및 제품홍보, 여신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김성훈 본부장은 “NH농협은행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농업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도민맞춤형 알기쉬운 결산정보 공개

전북개발공사는 창립 이래 26년간 당기순이익 누적 2,217억(평균 85억) 실현하였고, 2024년 35억원 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민맞춤형 알기쉬운 결산정보를 제작·공개했다. 도민맞춤형 알기쉬운 결산정보는 전문적인 회계용어를 알기쉬운 말로 바

꾸고, 주요 내용을 그림이나 그래프 등으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시각화한 것이다.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 접근성이 편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전

북개발공사의 2024년 결산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공사의 최근 5개년 재무 및 손익현황, 부채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공사의 사업 현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와 이해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도민의 행복파트너 전북개발공사로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